

## 東醫寶鑑 序文 [李廷龜]

醫者 雅言(軒岐) 軒岐上窮天紀 下極人理 宜不屑乎記述 而猶且說 問著 難垂法 後世則醫之有書 厥惟遠哉 上自(倉越) 下逮 (劉 張 朱 李)百家 繼起 論說紛然 (剽竊緒餘) 爭立門戶 書益多而術益晦 其與靈樞本旨 不相(逕庭)者 鮮矣 世之(庸醫) 不解窮理 或倍經訓而好自用 或泥故常而不知變眩於(裁擇) 失其(關鍵) 求以活人 而殺人者 多矣我

我宣宗大王 以理身之法 推濟衆之仁 留心醫學 (軫念)民瘼 嘗於丙申年 間 召太醫許浚 教曰 近見 中朝方書 皆是抄集 (庸瑣)不足觀爾 宜(哀聚) 諸方輯成一書 且人之疾病 皆生於不善調攝修養爲先 藥石次之 諸方浩繁 務擇其要 窮村僻巷 無醫藥而夭折者 多 我國鄉藥多產 而人不能知爾 宜 分類並書鄉名 使民易知”. 浚 退與 儒醫 (鄭碁) 太醫(楊禮壽) (金應鐸) (李命源) (鄭禮男) 等設局 撰集略成 (肯綮)值 丁酉之亂 諸醫(星散)事遂寢 厥後 先王 又教許浚 獨爲撰成 仍出內藏方書 五百卷 以資考據撰 未半而(龍馭賓天)

至(聖上)即位之三年庚戌 浚始卒業而(投進) 目之 曰東醫寶鑑 書 凡二十五卷 上覽而嘉之 下教 曰陽平君 許浚 曾在先祖 特承撰集 醫 方之命 積年覃思 至於(竄謫流離)之中 不廢其功 今內編帙 以進仍念先 王命撰之 書 告成於(寡昧嗣服)之後 予不勝悲感 其賜浚太僕 馬一匹 以 酬其勞 速令內醫院 設廳(鉦梓) 廣布中外且命 (提調) 廷龜撰 序文(升)之卷首

의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늘 현재 현원과 기백을 말하곤 한다. 황제와 기백은 위로는 天紀[천체의 운행규칙]를 궁구하고 아래로는 人理[사람의도리]를 지극히 하였으니, 굳이 기술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겠지만, 오히려 황제가 묻고 기백이 난해한 도리를 밝혀주는 형식의 글로 후세에 그 법을 남겨 주신즉, 의가에 서적이 있게 된 역사는 참으로 유구하다. 그 후 위로는 창공[순우의]과 진월인[편작]으로부터 아래로는 유완소, 장종정, 주진형, 이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가가 연이어 일어나서 논설이 분분해지고 지엽적인 것을 표절하면서 다투어 문호를 세우니, 책은 더욱 많아졌으며 의술은 더욱 모호해져 <영추경>의 본뜻과 서로 멀어지지 않은 것이 드물게 되었다. 세상의 용렬한 의사들은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경서의 가르침을 어기고 자의대로 처방하기를 좋아하거나, 혹은 선례에 얽매어서 변통할 줄 몰라 재량하여 가리는 데 어둡고 그 관견을 잃어버리니 사람을 살리려다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다.

우리 선종대왕께서 몸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대중을 구제하려는 어진 마음을 베풀어, 의학에 마음을 두시고 백성들의 병고를 비통한 심정으로 염려하셨다. 일찍이 병신년에는 太醫 臣 許浚을 불러 다음과 같이 하교하셨다 "요즘 중국의 의학서적들을 보니, 모두 조잡한 것들을 모아 둔 것인 양하여 볼 만한 것이 못 된다. 여러 의술서를 모아 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. 또한 사람의 질병을 모두 調攝을 잘못하는 데서 생기므로 修養이 우선이고, 藥石은 그 다음이다. 그런데 여러 의술서들은 번잡하니, 그 요점을 가리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. 궁벽한 마을에는 의약이 없어 요절하는 사람이 많고, 우리나라에는 鄉藥이 많이 생산되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할 뿐이다. 그러니 분류하고 鄉名을 병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" 허준이 물러 나와 儒醫 정작, 태의 양예수, 김응탁, 이명원, 정에남 등과 局을 설치하고 撰集하여 중요한 부분을 대략 완성하였다. 그러나 정유재란을 만나 여러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일은 멈추게 되었다. 그 뒤 선왕께서 다시 허준에게 하교하시어 혼자서 편찬하게 하시고, 內藏庫의 의술서 오백권을 내주시어 참고하는 데 자료로 삼게 하셨다. 그런데 이 책의 편찬이 반도 되지 않아 선왕께서 승하하셨다.

성상[광해군] 즉위 3년 경술[1610]에 허준이 비로소 일을 마치고 책을 진헌하여, 제목을 <동의보감>이라고 하였으니, 모두 25권이다.임금께서 보시고 가상히 여겨 하교하시기를 "양평군 허준은 선조에서 특별히 의술서 찬집하라는 명을 받고 여러 해 동안 깊이 생각하여 찬적竄謫, 유리流離하던 중에도 그 일을 폐하지 않아 지금 마침내 책을 엮어 올리게 되었다. 선왕께서 찬집하라 명하신 책이 어리석은 과인 즉위한 후에야 완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슬픈 마음 억누를 수가 없다" 하시고, 허준에게 太僕馬 한 필을 하사하여 그의 노고에 보답하셨다. 그리고 내의원에게는 속히 廳을 설치하고 책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하게 하셨다. 또 提調인 臣 이정구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지어 卷首에 붙이라고 하셨다.